大法徒 宋詞

大法徒
蒙難在中原
天地無道爛鬼狂
正法洪勢在眼前
法正人世間

매화 원곡

탁세(濁世)에 핀 청련 같은 억만 송이 매화
찬바람에 그 자태 더욱 어여뻐라
연일 내리는 눈비(雪雨)는 신불의 눈물이라
매화가 돌아오길 바라네

勿迷世中執著事
堅定正念
從古到今
只爲這一回

二零零三年一月二十八日

누대와 정각은 흰 구름 아래 있고
당나라 풍 새 절에 진정한 신이 있도다

2003년 9월 30일

樓台亭閣白雲下
唐風新寺有真仙

二零零三年九月三十日

세상사 집착에 미혹되지 말고
정념을 견정히 하여라
예부터 오늘에 이름은
오로지 이 한 차례를 위함이어라

2003년 1월 28일

下塵

法輪轉時必有狂
國力傾盡爲吾忙
靜觀丑角妖戲盡
只剩殘土風中揚

용천사(龍泉寺)

장려(壯麗)한 옛 절 밀림 속에 있고
새벽안개 자욱이 호수에 피어오르네

龍泉寺

壯麗古刹密林間
晨霧繚繚起湖面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다

파룬(法輪)이 돌 때 필연 미쳐 날뛰는 것 있나니
국력을 탕진하며 나를 위해 바쁘구나
어릿광대 요괴연극 가만히 보고 있나니
오로지 남은 흙먼지만 바람에 날리누나

輪迴五千雲和雨
揮去封塵看短長
大戲誰是風流主
只爲眾生來一場

壬午年臘月二十九日

二零零三年一月三十一日

천체(天體) 무한히 크나
환체(寰體) 또한 극히 크도다
대궁은 이미 멀리 갔으니
주인의 자리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네
천성(天性)은 호기가 커
소모해도 없어지지 않네
뜻은 금강지라
대법이치로 통일되는도다

2003년 9월 20일

天體無限大
寰體又洪極
大穹已去遠
主位更絢麗
天性豪氣洪
消磨也不去
意如金剛志
一統大法理

二零零三年九月二十日

구름과 비 순환하기 오천 번
뒤덮인 먼지 털어버리고 길고 짧음을 보나니
큰 연극에 누가 풍류의 주연인가
오로지 중생을 위해 한 번 출연하노라

임오년 12월 29일
2003년 1월 31일

大法行 宋詞

法輪大法
深未測
成大蒼穹
造眾生
三字真言
理白言明
常人知表得厚福
官吏知淺明如鏡
王知理
安邦治國
得太平

법이 일체를 바로잡다

삼계를 뚫고 나가니
공(空)과 무(無)는 우주를 드러내네
법이 건곤을 바로잡은 지 오래 되어
잠깐 쉬려는데 악이 또 일어나는구나
사대(四大)는 이미 풍화되었고
낡은 법은 해체되고 있도다

法正一切

衝出三界外
空無顯大宇
法正乾坤久
預歇惡又起
四大已風化
舊法在解體

대법행(大法行) 송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워라
대궁을 이루고 중생을 양성하였나니
세 글자 진언은
이치가 분명하고 언어가 명백하나니
속인은 표면만 알아도 후한 복 받을 것이요
관리(官吏)는 얕게 알아도 사리가
거울처럼 밝을 것이요
임금이 이치를 알면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려
태평을 얻을 것이요

出盛世
君臣正
延陰福
民安定
五穀年年豐
修者更明
一朝得法入道中
精進實修功法成
反迫害
救度眾生
神道行

二零零三年三月二日

癸未年正月三十日

금강지(金剛志)

가을 하늘 높고 날씨는 점차 맑아져
뿌연 흙먼지 걷히네
시일을 손꼽아 헤어보니
대궁 사라질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미혹된 중생은 저마다 소란을 피우며
큰 위험이 닥쳐도 긴박함을 모르는구나
붕렬(崩裂)되기 전 힘껏 만회하려니
어찌 썩은귀신의 재앙을 용납할쏘냐
의지와 마음은 금강을 초월하였나니
홍미(洪微)는 내가 하고 있노라

2003년 9월 4일

金剛志

秋高氣漸清　　靄靄陰霾過
時日掐指算　　大穹去無多
迷眾各逞亂　　巨危不知迫
力挽崩裂前　　怎容爛鬼禍
志念超金剛　　洪微是我做

二零零三年九月四日

성세(盛世)가 나타나
임금과 신하가 바르고
음복(陰福)을 이어가나니
백성은 안정되고
오곡은 해마다 풍년이리로다
수련자는 더욱 밝아
하루아침 법 얻어 입도(入道)하나니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 공과 법을 성취하리라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도하며
신의 길(神道)을 걷는도다

2003년 3월 2일
계미년 정월 30일

一念中

坦坦蕩蕩正大穹
巨難伴我天地行
成就功德腦後事
正天正地正眾生
真念洪願金剛志
再造大洪一念中

癸未年五月十三日

이지 각성(理智醒覺)

잠깐 쉼에도 자아 성찰하고 정념을 더하며
부족함을 똑똑히 알아 다시 정진할지어다

2003년 9월 4일

理智醒覺

少息自省添正念
明析不足再精進

二零零三年九月四日

일념중(一念中)

거침없이 대궁을 바로잡나니
거대한 난이 나를 따라 천지에서 행하네
공덕을 성취함은 나중의 일이라
하늘을 바로잡고 땅을 바로잡고 중생을 바로잡노라
진념(眞念)의 큰 소원 금강지(金剛志)이니
대홍(大洪)을 재창조함도 일념중이로다

계미년 5월 13일

唐風

身在此山中
神思遊仙境
誰是古中原
不知大唐風

癸未六月

정벌

만리를 질주하며 요괴 진 쳐부수나니
흑수(黑手) 모조리 자르고 악한 신을 제거하노라
자욱한 안개 광풍 일 테면 일어라
한 줄기 산비(山雨)는 원정의 먼지를 씻어내네

2003년 9월 2일

征

馳騁萬里破妖陣
斬盡黑手除惡神
管你大霧狂風舞
一路山雨洗征塵

二零零三年九月二日

당풍(唐風)

몸은 이 산 속에 있으나
마음은 선경을 거니노라
누가 옛 중원인가
대당풍(大唐風)을 모르는구나

계미 6월

看好

世間雖小 大穹盡照
滿天是眼 眾神聚焦
穹蒼從組 乾坤再造
爾要它要 可悲可笑
法主正穹 何物可逃

二零零三年六月十九日

정법이 보고 있노라 송사

한(漢) 나라 천하는 한신(韓信)이 개척했고
대당(大唐) 태종은 강토를 넓혔으며
육랑(六郎) 악비는 중원을 보위했도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중생이 여기에 와 법 얻게 하기 위함이로다

2003년 8월 15일

正法看　宋詞

漢室天下韓信打
大唐太宗朝疆大
岳飛六郎保中原
爲了啥
眾生來此要得法

二零零三年八月十五日

똑똑히 보아라

세간 비록 작으나 대궁을 모조리 따랐구나
온 하늘 다 눈이라 뭇 신들 초점 모으네
창궁을 새로 구성하고 건곤을 재창조하노라
너도 바라고 그것도 바라나니 가엾고 가소롭구나
법주가 창궁을 바로잡나니 무엇인들 벗어날쏘냐

2003년 6월 19일

讀學員文章

利筆著華章
詞勁句蘊強
科學滿身洞
惡黨衣扒光

二零零三年七月二十二日

승냥이 이리떼 세상에 무리지어 다니거늘
난잡한 당 요괴가 선두를 이끄네
악은 갚지 않으면 안 되나니
거대한 기세가 곧 다가오리라

2003년 8월 1일

貉狼世上走
亂黨妖領頭
不是惡不報
洪勢就來到

二零零三年八月一日

수련생 문장을 읽다

예리한 필력으로 멋진 글을 썼나니
단어는 힘 있고 구절은 강함을 품었구나
과학은 온몸이 허점투성이라
악당의 허울을 말끔히 벗겼도다

2003년 7월 22일

亂世 宋詞

中原上下五千年
朝朝代代換新顔
末世天無道
行惡又行妖

난세(亂世) 송사

중원 상하 오천년
왕조마다 새로운 색채로 바뀌었네
말세의 하늘은 도(道)가 없나니
악이 횡행하고 요사함 또한 횡행하는구나